

대북인식의 변화 및
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:
KGSS 2003~10 자료분석

한경혜(서울대) · 김상욱(성균관대)

내용

- I. 들어가기
- II. 조사개요
- III.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: 2003-10
- IV. 국가별 친밀성의 변화: 2003-10
- V.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: 2003-10
- VI.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: 2010
- VII.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: 2010
- VIII. 마무리 및 제언

I. 들어가기

■ 다문화사회의 도래

- ❖ 외국인 유학생
- ❖ 외국인 노동자
- ❖ 결혼이민자(다문화가정)
- ❖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: 2010. 9 현재 20,000명 도달(통일부)

■ 대북인식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

- ❖ 특수성: 통일민족 / 남북통일의 당위성
- ❖ 기존 연구는 주로 남한사회에서의 성공적 적응(정착, 자립 등)에 초점
- ❖ 대북인식 및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거리감(social distance) 혹은 수용도(호오도)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는 일부(김영수 1998, 정기선 1998, 김상학 2004, 박수미 외 2004, 이명진 외 2009)를 제외하곤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
- ❖ 그나마 기존 연구들은 특정 인구집단(예, 고등학생, 대학생 등)을 조사대상으로 삼거나 전국 단위의 대표성 높은 표집이 여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(예, 할당표집)를 노정
- ❖ 특별히,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이 보호 중심에서 자립 중심으로 전환(2005)하게 됨에 따라 전사회적 차원에서의 대북 인식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그 중요성이 가일층 증대

3

- ❖ 북한이탈주민 자신들 역시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인관계를 위시한 자신들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시각 혹은 태도를 꼽고 있음(이경희·배성우, 2006)
- ❖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이중성(ambivalence): 민족적, 인권적, 당위적 차원에서의 동정적 심리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심(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), 거리감, 이질감 등과 상호 공존(원숙연, 2008)

■ 대북인식 및 사회적 거리감 조사연구의 발전적 방향

- ❖ 방법론적으로 정교한 전국 단위의 학술 사회조사(national sample survey)를 시계열적으로 지속해서 반복함으로써 변화 추이를 면밀히 추적 관찰
- ❖ 단순한 일원, 이원 분석을 넘어서 다변량분석(multivariate analysis)를 시도
- ❖ 다양한 사회인구학적(성별, 연령, 학력 등), 사회정치적(이념성향 등) 변인 등을 동원한 체계적 계량분석
- ❖ 주요 이주자 및 외국인(외국 출신)—결혼이주자, 외국인근로자, 중국동포, 외국인유학생, 외국인 기업가—과 동시다발적으로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차이 및 현주소를 측정

4

II. 조사 개요

■ 한국종합사회조사(KGSS: Korean General Social Surve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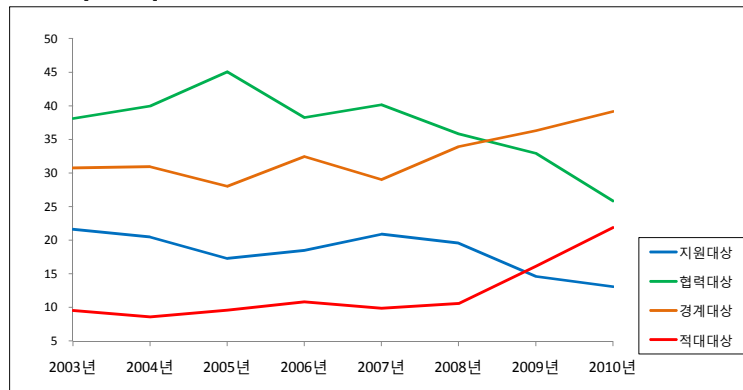
- ❖ 전국적, 주기적, 국제적, 공익적 학술사회조사
- ❖ 미국의 GSS, 유럽의 ESS, 전세계적 ISSP, 동아시아의 EASS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설계하고 시행
- ❖ 조사 및 연구 주무 기관: Survey Research Center(성균관대)
- ❖ 표본: 전국의 가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
- ❖ 표본추출: 다단계지역확률표집(multi-stage area prob. sampling)
- ❖ 표본크기: 200 blocks(PPS) X 12 or 13 household members = 2,500 [유효응답률 = 62~65%]
- ❖ 조사방법: 조사원에 대한 직접방문 심층면접(face-to-face, in-depth interviews)
- ❖ 조사연혁: 2003 ~ (매년)
- ❖ 대북 관련 문항 다수 포함: 특별히 2010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자 및 외국인에 대한 호오도 및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별도의 특별주제모듈(special topical module)로 포용
- ❖ KGSS의 차별성: 방법론적 엄정성(표본대체 불허, 조사원기입식 고수, repeated visit protocols 등)

5

III.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: 2003~10

-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을 '적대대상'이라기 보다는 '지원대상', 그리고 '경계대상'보다는 '협력대상'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나,
 - ❖ 최근 남북관계의 악화 등으로 인해 적대적 또는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급격히 증가

[그림 1] 북한에 대한 대국민 인식의 변화 추세: 2003-20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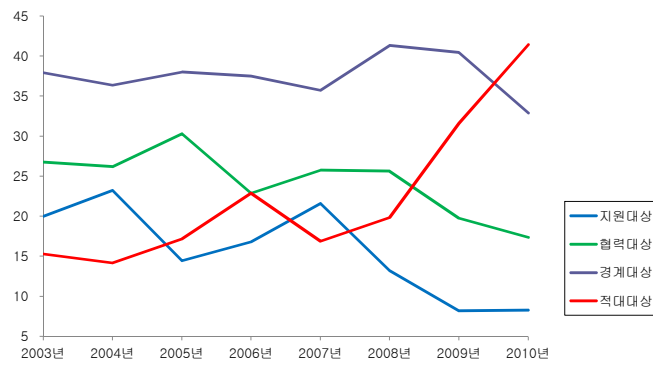


6

가. 세대별 북한인식의 차이

- 6.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으나, 최근 들어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급격히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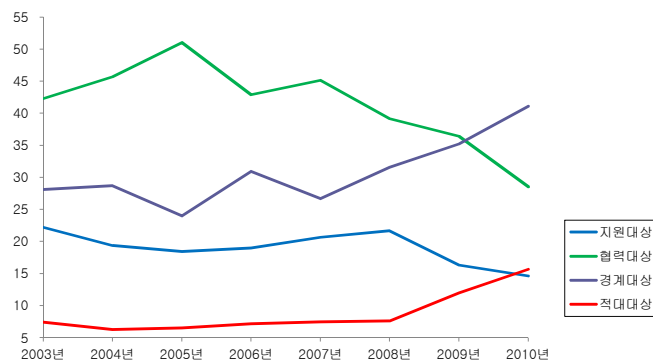
[그림 2] 6.25 전쟁 경험 세대(1953년 이전 출생)의 대북인식: 2003~2010



7

- 반면, 6.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으나, 최근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급격히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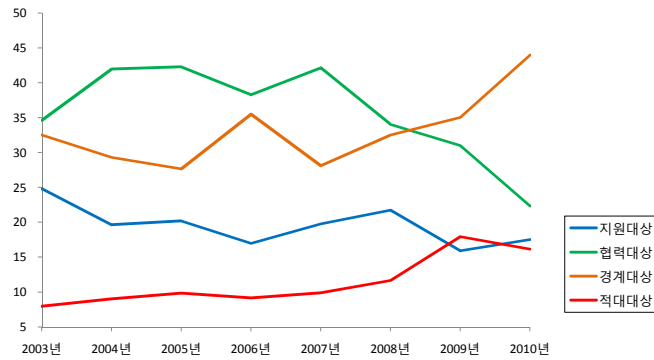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6.25 전쟁 미경험 세대(1953년 이후 출생)의 대북인식: 2003~2010



8

- 6.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중에서도 이른바 '베이비붐'세대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, 최근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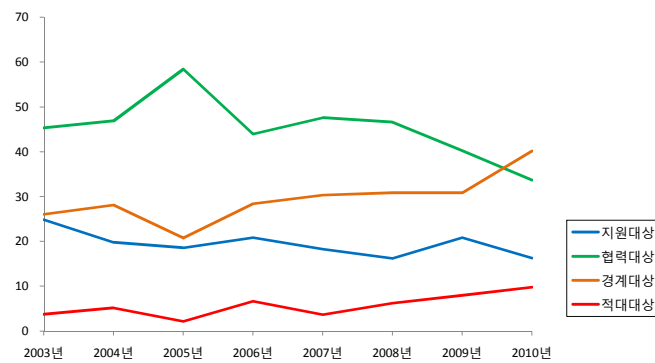
[그림 4] 베이비붐 세대(1954~1964년생)의 대북인식: 2003~2010



9

- 한편, 1960년대에 출생한 소위 386세대는 이전세대에 비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나, 2010년에는 그 비율이 급격히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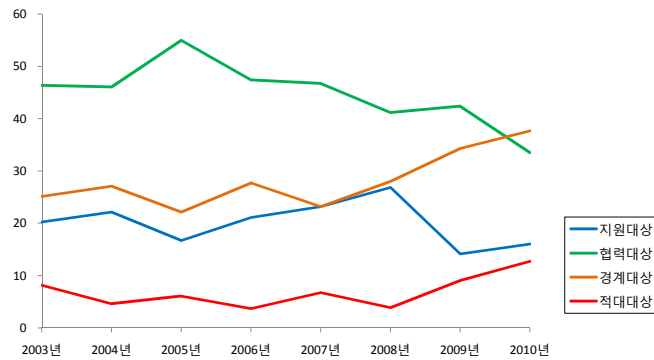
[그림 5] 386세대(1960년대 출생)의 대북인식: 2003~2010



10

- 1970년대에 출생한 일명 X세대 또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다가, 최근 들어 **경계대상**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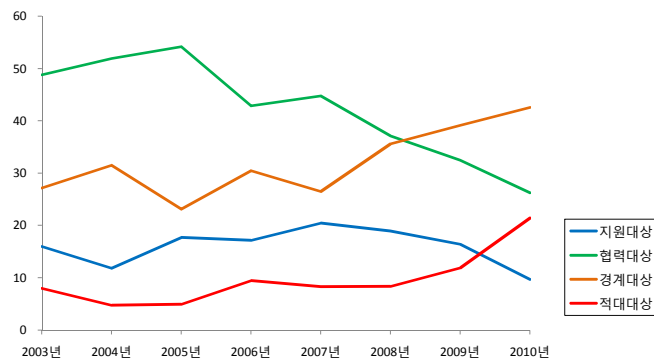
[그림 6] X세대(1970년대 출생)의 대북인식: 2003~2010



11

- 베이비붐세대의 자녀들로서 소위 N세대라고 지칭되는 1980년 이후 출생자들 역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나, 그 비율은 급격히 감소함과 동시에 **경계대상**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

[그림 7] N세대(1980년대 출생)의 대북인식: 2003~20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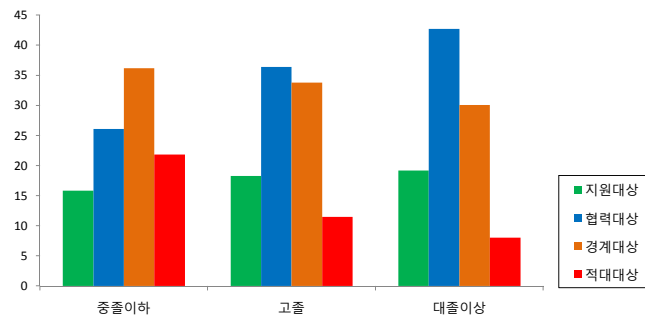


12

나. 교육수준별 대북인식의 차이

- 2003~2010 전체 기간 동안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, 대북인식은 교육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보임
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을 지원 또는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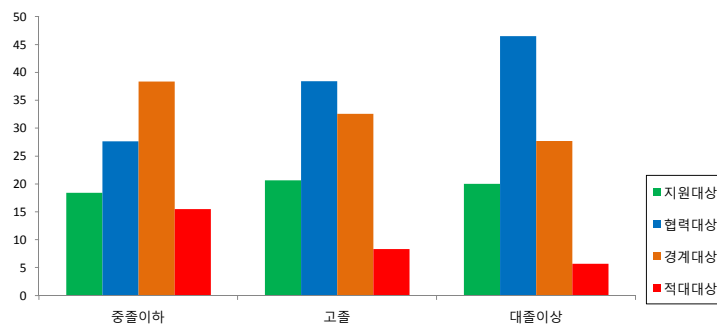
[그림 8] 2003~2010 학력 수준에 따른 대북인식의 차이: 전 연령층



13

-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386세대의 경우에도 학력간 차이를 드러냄

[그림 9] 386세대의 학력 수준에 따른 대북인식의 차이: 2003-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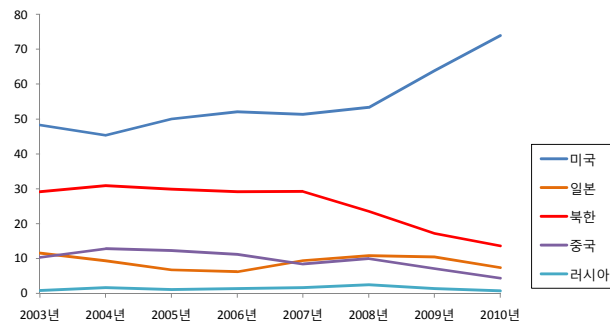


14

IV. 국가별 친밀성의 변화: 2003~10

-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친밀성이 가장 높고, 북한이 그 다음을 차지
- 일본과 중국은 국가적 친밀성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
- 하지만,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친밀성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, 미국에 대한 친밀성은 확연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

[그림 10] 국가 친밀성의 변화: 2003-20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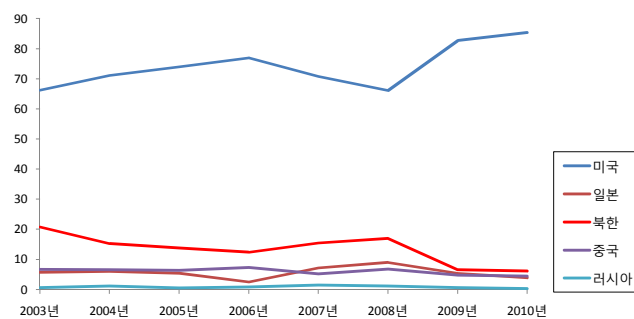


15

가. 세대별 북한 친밀성의 차이

- 6.25 전쟁을 경험한 1953년 이전 출생자들은 미국에 대한 친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비록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북한의 친밀성이 약간 높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마저도 낮아져 다른 국가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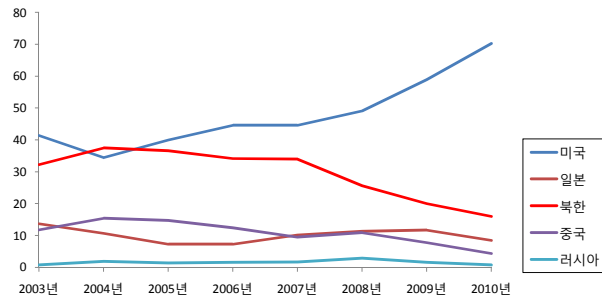
[그림 11] 6.25 전쟁 경험 세대(1953년 이전 출생)의 국가 친밀성: 2003-2010



16

- 6.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친밀성이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으나,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친밀성은 급감하는 반면 미국에 대한 친밀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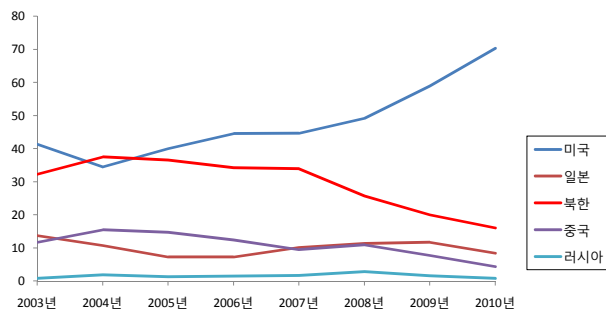
[그림 12] 6.25 전쟁 미경험 세대(1953년 이후 출생)의 국가 친밀성: 2003~2010



17

- 1960년대에 출생한 386세대의 경우 전쟁 경험세대에 비해서는 북한에 대한 친밀성이 다소 높지만,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, 미국에 대한 친밀성이 높은 수준으로 계속 증가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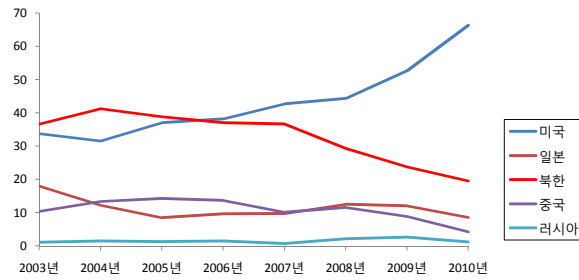
[그림 13] 386세대(1960년대 출생)의 국가 친밀성: 2003~2010



18

- 1970년대에 출생한 X세대 또한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에 대한 친밀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지만,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친밀성은 감소하는 반면, 미국에 대한 친밀성은 증가하는 추세

[그림 14] X세대(1970년대 출생)의 국가 친밀성: 2003~20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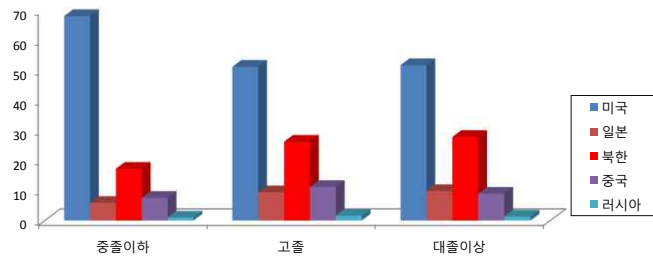


19

나. 교육수준별 북한 친밀성의 차이

- 지난 8년간(2003~2010)간 한국사회에서 국가간 친밀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미국에 대한 친밀성이 높은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에 대한 친밀성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,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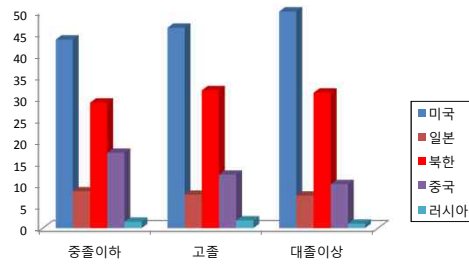
[그림 15] 교육수준에 따른 국가친밀성 경향: 2003-10



20

- 386세대의 경우, 저학력층의 경우 북한을 경계/적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나, 이들의 국가친밀성에 있어서는 학력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

[그림 16] 386세대(1960년대 출생)의 교육수준에 따른 국가친밀성 경향: 2003-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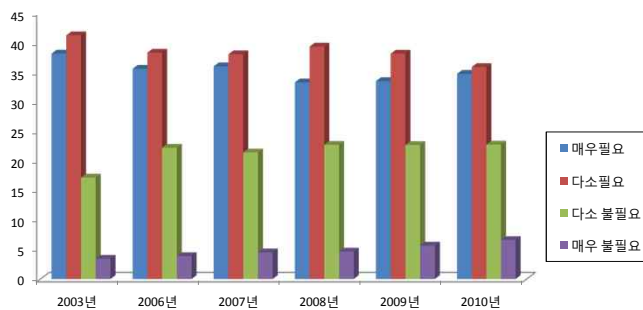


21

V.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: 2003~10

-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친밀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,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
 - 최근 들어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음

[그림 17]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: 2003~20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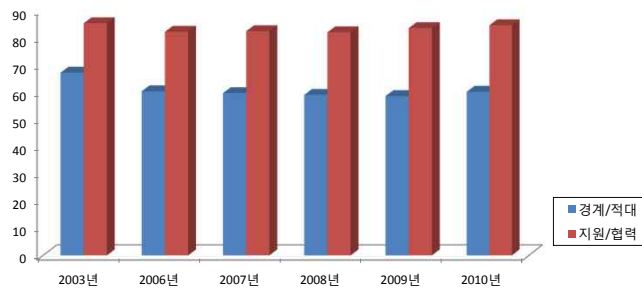


* 2004, 2005년 KGSS에서는 조사하지 않음

22

- 한편,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통일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냄
 - 북한을 적대/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지원/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낮게 인식

[그림 18] 북한인식의 차이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 태도: 2003~20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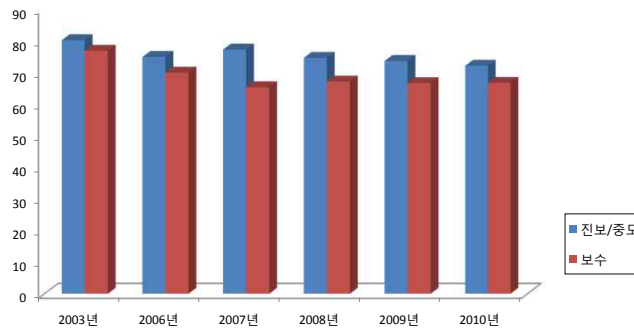


* 2004, 2005년에는 조사하지 않음

23

-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었으나,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

[그림 19] 정치성향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 태도: 2003~2010



* 2004, 2005년에는 조사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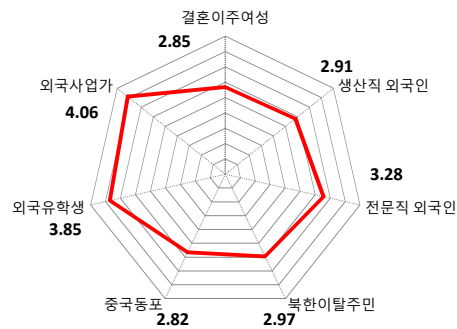
24

VI.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: 2010

가.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대한 호오도

- 한국인들은 외국사업가, 전문직 외국인, 외국유학생의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반해,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대해서는 결혼이주여성, 생산직 외국인, 중국동포와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

[그림 20]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대한 호오도: 201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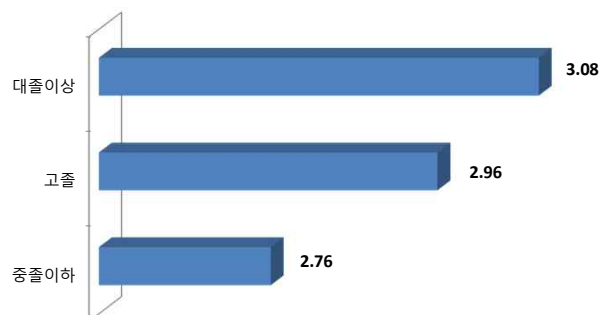
* 1=매우감소, 2=다소감소, 3=변화없음, 4=다소 증가, 5=매우증가

25

가. 교육수준별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대한 호오도

-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대한 호오도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임

[그림 21] 교육수준별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대한 호오도: 201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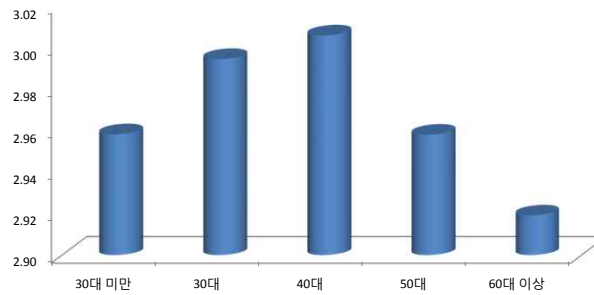
* 1=매우감소, 2=다소감소, 3=변화없음, 4=다소 증가, 5=매우증가

26

나. 연령별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대한 호오도

- 연령이 증가할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, 40대를 중심으로 다시 선호도가 낮아지는 '역 U자'의 형태

[그림 22] 연령별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대한 호오도: 201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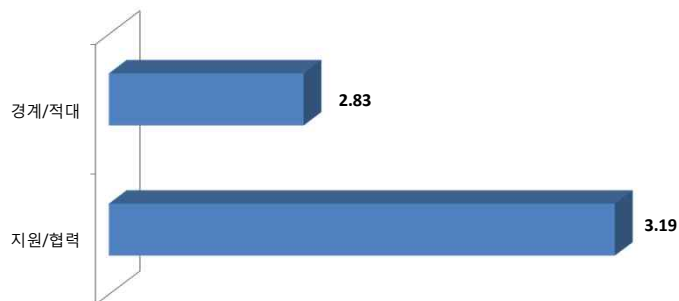
* 1=매우감소, 2=다소감소, 3=변화없음, 4=다소 증가, 5=매우증가

27

다. 대북인식별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대한 호오도

- 북한을 지원 또는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경계 또는 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[그림 23] 대북인식별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대한 호오도: 201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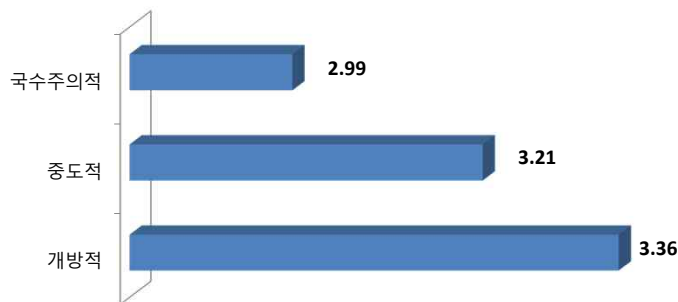
* 1=매우감소, 2=다소감소, 3=변화없음, 4=다소 증가, 5=매우증가

28

라. 국내 이민자에 대한 태도별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대한 호오도

- 한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[그림 24] 국내 이민자에 대한 태도별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대한 호오도: 2010



* 1=매우감소, 2=다소감소, 3=변화없음, 4=다소 증가, 5=매우증가

29

마. 다변량 분석(multivariate analysis)

<주요 변수>

- 종속변수: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대한 호오도(매우 감소 1~ 매우 증가 5)
- 설명변수
 - ❖ 북한에 대한 인식: 경계/적대 대상=1, 지원/협력대상=0
 - ❖ 북한에 대한 친밀성: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경우=1, 기타=0
 - ❖ 남북통일의 필요성: 필요=1, 불필요=0
 - ❖ 국가에 대한 자긍심: 자랑스러움=1, 자랑스럽지 않음=0
 - ❖ 정치성향: 보수=1, 진보/중도=0
 - ❖ 이민자에 대한 태도: 국수적(ref.), 중도적, 보수적
- 통제변수
 - ❖ 성별: 남성=1, 여성=0
 - ❖ 연령: (만)연령
 - ❖ 교육수준: 중졸이하(준거범주), 고졸, 대졸이상
 - ❖ 직업지위: Treiman의 직업위세 점수(미취업=0)

<분석방법>

- ❖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(hierarchical regression model)

30

<분석결과: 모형2 중심>

-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를 선호
-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보다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이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
- 북한을 적대/경계의 대상으로 여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
-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는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를 실제로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됨
- 국내 이민자에 대해 국수적 태도를 갖는 사람들보다는 중도적 또는 개방적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대해 선호가 높음
- 국가적 자긍심, 정치적 성향은 별다른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음

31

[표 1] 북한이탈주민 증가 선호에 대한 Ordered Logit Model 결과 (2010 KGSS)

	모형1		모형2	
	exp(std)		exp(std)	
성별(남성=1)	0.371(0.096)	***	0.352(0.098)	***
연령	0.009(0.004)		0.009(0.004)	
교육수준(중졸 이하=ref)				
고졸	0.446(0.158)	**	0.436(0.16)	**
대졸이상	0.707(0.165)	***	0.525(0.168)	***
북한인식(경계/적대=1)	-		-0.213(0.106)	***
국가친밀성(북한=1)	-		0.506(0.148)	***
국가자긍심(자긍심=1)	-		0.035(0.144)	
통일필요성(필요=1)	-		0.695(0.112)	***
정치성향(보수=1)	-		0.065(0.104)	
이민자에 대한 태도(국수적=ref)				
중도적	-		0.340(0.124)	**
개방적	-		0.796(0.129)	***

32

VII.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: 2010

가. 척도의 신뢰도 검정

- Guttman 척도와 같이 항목간에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누적척도(cumulative scale)의 경우 모든 문항간에 동일한 빈도를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Cronbach Alpha와 같은 신뢰도 검증을 할 수 없음
- Mokken Scale 분석은 이러한 누적척도의 신뢰도 검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

[그림 25]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측정 척도(2010 KGSS)

		북한이탈주민 (새터민)	
		찬성	반대
1)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	___ ① ___ ② ___		
2)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	___ ① ___ ② ___		
3) 내 직장에서 동료로 지내는 것	___ ① ___ ② ___		
4)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	___ ① ___ ② ___		
5) 나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	___ ① ___ ② ___		
6)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	___ ① ___ ② ___		
7)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	___ ① ___ ② ___		

33

가. 척도의 신뢰도 검정

- Loevinger' H 검정통계량값이 0.5 이상일 경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며, 각 문항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더미변수로 변환(찬성=1, 반대=0)하여 모든 문항의 합으로 척도를 구성
- 문항분석 결과 문항일치성이 높아 각 문항의 합으로 척도 구성 적합

<표 2>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의 문항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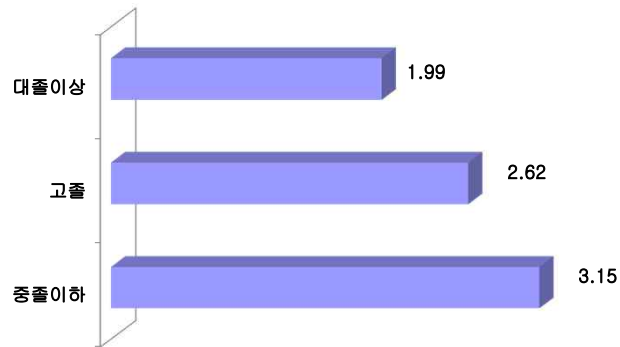
문항구분	Mean Score	Loevinger H	Z-값
1) 방문	0.20	0.67	45.60***
2) 국민	0.22	0.72	50.84***
3) 동료	0.23	0.78	55.91***
4) 이웃	0.24	0.80	57.13***
5) 친구	0.32	0.83	55.19***
6) 자녀의 배우자	0.61	0.88	46.48***
7) 내 배우자	0.64	0.89	44.92***

34

나. 탐색적 분석결과

-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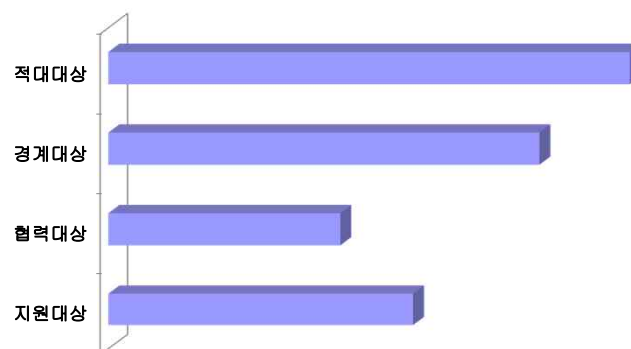
[그림 26] 교육수준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차이



35

-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(적대적 또는 경계적 대상)을 가질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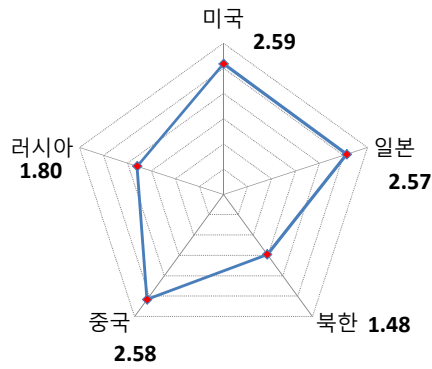
<그림 27> 대북인식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차이



36

- 미국, 중국, 일본에 대해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에 비해, 북한을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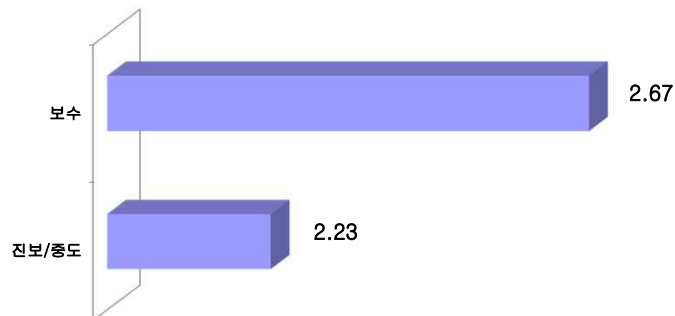
<그림 28> 국가친밀성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차이



37

-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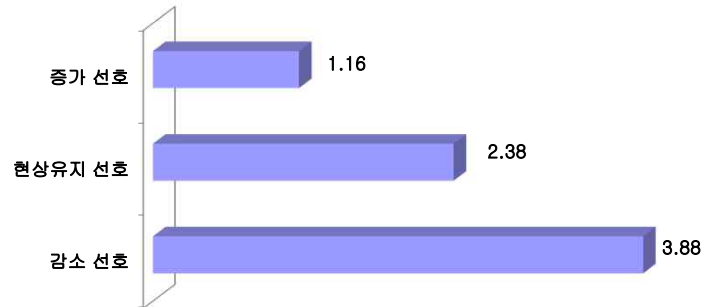
<그림 29> 정치성향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차이



38

-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대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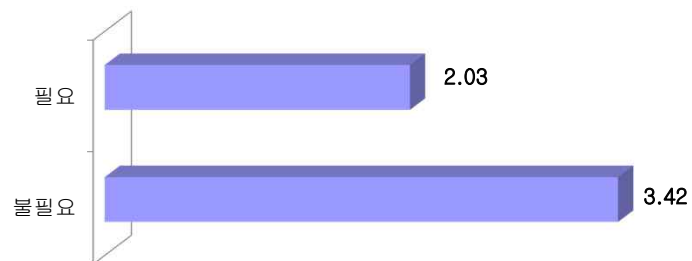
<그림 30> 북한이탈주민 증가 호오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차이



39

-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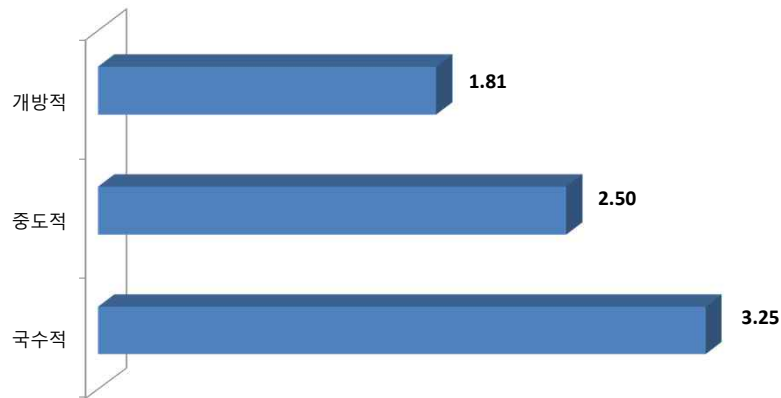
<그림 31> 통일의 필요성 여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차이



40

- 국내 이민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

<그림 32>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차이



41

다. 다변량 분석

<주요 변수>

- 종속변수: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(0~7)
- 설명변수
 - ❖ 북한에 대한 인식: 경계/적대 대상=1, 지원/협력대상=0
 - ❖ 북한에 대한 친밀성: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경우=1, 기타=0
 - ❖ 남북통일의 필요성: 필요=1, 불필요=0
 - ❖ 국가에 대한 자긍심: 자랑스러움=1, 자랑스럽지 않음=0
 - ❖ 정치성향: 보수=1, 진보/중도=0
 - ❖ 이민자에 대한 태도: 국수적(ref.), 중도적, 보수적
- 통제변수
 - ❖ 성별: 남성=1, 여성=0
 - ❖ 연령: 만연령
 - ❖ 교육수준: 중졸이하(준거범주), 고졸, 대졸이상
 - ❖ 직업지위: Treiman의 직업위세 점수(미취업=0)

<분석방법>

- ❖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(hierarchical regression model)

42

<분석결과: 모형2 중심>

-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사회적 거리감이 작음
- 중졸이하의 저학력층보다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적음
- 북한을 적대/경계의 대상으로 여길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또한 증가
-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는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적음
-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를 바라는 경우도 사회적 거리감이 적음
-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큼
- 이민자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가질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적음

43

[표3]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OLS regression Model 추정 결과

	모형1		모형2	
	b (std)		b (std)	
성별(남성=1)	-0.90706	(0.118)***	-0.7369	(0.104)***
연령	-0.00001	(0.005)	-0.0020	(0.004)
교육수준(중졸 이하=ref)				
고졸	-0.44729	(0.188)**	-0.2152	(0.167)
대졸이상	-1.00851	(0.197)***	-0.3966	(0.175)***
북한인식(경계/적대=1)	-		0.7199	(0.115)***
국가친밀성(북한=1)	-		-0.2212	(0.16)
국가자긍심(자긍심=1)	-		0.0360	(0.151)
통일필요성(필요=1)	-		-0.6734	(0.122)***
북한이탈주민증가태도(감소=ref)				
현상유지(=1)	-		-1.1394	(0.128)***
증가(=1)	-		-2.0736	(0.131)***
정치성향(보수=1)	-		0.2431	(0.111)**
이민자에 대한 태도(국수적=ref)				
중도적(=1)	-		-0.4149	(0.133)**
개방적(=1)	-		-0.5691	(0.136)***
상수	3.48006	(0.321)	0	4.4980
	R ² 0.075		0.320	

44

VIII. 마무리 및 제언

- **대북인식은 다분히 부정적**
 - ❖ 특별히 최근 남북관계의 악화 등으로 인해 지원 및 협력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경계 및 적대의 대상으로 경향이 점차 농후
 - ❖ 경계 및 적대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은 세대(전쟁경험세대, 베이붐세대, 386세대, X세대, N세대)를 막론하고 현저히 증가
 - ❖ 한편, 대북 부정적 인식은 고학력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경향
- **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가장 강하고 북한에 대해선 친밀성이 낮음**
 - ❖ 이러한 변화는 특히 최근 들어 더욱 확연한 경향을 보임
 - ❖ 이러한 경향은 세대 및 학력과 거의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관찰됨
- **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당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**
 - ❖ 한편 최근 들어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의견 또한 다소 증가하는 경향
 - ❖ 통일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북한을 적대적으로 보는 사람들 및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 사이에 팽배

45

- **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대한 인식이 다분히 부정적**
 - ❖ 여타 이주민(결혼이주, 이주근로자 등)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수준
 - ❖ 민족적, 인권적, 당위적 차원에서의 동정적 심리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의 의심(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), 거리감, 이질감 등이 앞서는 경향
 - ❖ 부정적인 인식은 특히 저학력자 및 30-4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지배적
← 사회경제적 자원의 취득과 관련한 직접적 경쟁 심리(?)
 - ❖ 국내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 태도가 국수적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
- **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적지 않음**
 - ❖ 거리감은 특히 저학력자, 대북인식이 부정적인 사람들, 정치적 보수, 통일의 필요성을 당위적으로 느끼지 않은 사람들,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국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팽배

46

■ 제언: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오도 및 사회적 거리감 측정의 세분화 전략

- ❖ 국내의 다양한 이주민들을 이주목적별(결혼, 취업, 유학 등) 및 출신국적별(중국, 북한, 동남아시아, 북미, 유럽 등)로 보다 세밀히 구분한 상태에서 호오도 및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해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인식을 상대적, 등가적으로 파악
- ❖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태도와 행위를 나타내는가(성공적 적응 및 정착의 문제) 못지 않게 남한사람들이 그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음
- ❖ 이를 위해선 북한이탈주민이 다양한 이주민 집단들 사이에서 어떠한 상대적 위치를 점하는가(얼마나 더 멀거나 가깝게 느끼는가)를 보다 정교하고 등가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의 측정 및 조사연구가 시급히 요구됨
- ❖ 이러한 측정 및 조사의 필요성은 특히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거리감이 결코 적지 않을 뿐더러 점차 악화일로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할 것으로 여겨짐
- ❖ 또한 이러한 측정의 개발 및 도입에 있어서 한국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해본 경험 및 빈도, 북한이탈주민을 새로운 하위계층으로 인식하거나 구별짓기하는 양태 등도 같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

47

감사합니다

48